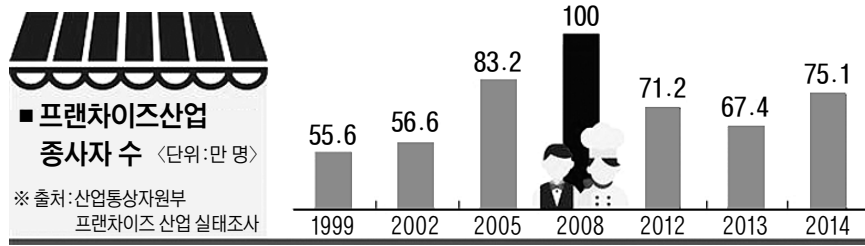


외식 프랜차이즈 가게 1곳당 3명 일자리 창출

프랜차이즈 직접종사자 80만명 “잡질 논란에도 순기능 있어” 기업 생태계 지원 정책 필요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종사자수는 3.3명으로, 비프랜차이즈 외식 업체 평균 2.68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직접 종사자는 80만여명으로, 유관업종까지 포함하면 124만여명에 이른다.

2015년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맹본부 1곳이 창업할 때 가맹본부 1개사가 55명을 고용하고 가맹점은 167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지난 1999년 45조원에서 2014년 102조 원으로 급성장하면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퇴직 후 창업 노후자가 없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

의 기여도도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프랜차이즈창업의 유·폐업률은 76.2%로, 일반창업(83.6%)에 비해 낮게 조사됐다. 이는 매출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월 매출 평균은 2010년 990만원에서 2013년 877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매출 평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 기준 일반 자영업

의 2배 이상 높은 207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따른 흥역을 치렀지만 일자리 등 프랜차이즈의 순기능까지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은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안정적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도와 창업 붐을 이끌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프랜차이즈산업은 해외시장 진출이 비교적 쉬우며 연계된 유통과 원자재, 식·음료 서비스 등 국내 연관산업의 파급 효과가 높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P사의 경우 2004년 중국 진출 후 2015년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프랑스 등 18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해외에서 올린 매출은 2014년 기준 2000억원에 달한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산업은 한류 열풍의 전도사다. 한식의 인식 확산으로 미국과 중국, 동남아 등지에 다양한 K-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진출해 있다”며 “국가 브랜드 구축과 함께 한국 제품의 세계화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우호적 환경을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하지만, 글로벌화를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지원 정책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조계현 소장의

창업 이야기



매출 떨어질 때 대응전략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이후 자영업자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당혹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매출의 매출하락 현상이다. 매출의 매출 하락은 주로 대형 행사나 날씨, 졸업, 입학 시즌, 선거, 유행병, 대형 사건사고 등 사회 이슈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하락과 경쟁업체의 출현, 상권의 변화, 소비트렌드의 변화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매장 내 제품이나 메뉴의 품질 저하와 가격경쟁력 상실, 직원들의 서비스 부실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지속적인 하락으로 구분된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매출하락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겪는 공통적인 상황이지만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지속적인 매출하락은 매장운영의 안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차츰 나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락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국 매출의 매출과 수익성은 더 나빠지는 데다 심지어 고객이 많이 찾지 않는 부정적인 매장의 이미지까지 덧입혀져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매출하락이 2개월 이상 이어지면 일단 사업자는 막연히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버리고 매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진단을 신속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경영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감각이 스스로 떨어진다 판단된다면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영진단 시 고객의 매출에 대한 평가의견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규명이 최우선적으로 체크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제품이나 메뉴, 위생상태, 매장 상태, 판매가격 그리고 사업자나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진단도 미스터리 쇼핑 형태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매출하락 원인 규명 시 사업자 본인 그리고 직원, 고객,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경영개선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로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전략 수립 시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핵심 부분들을 특히 집중하여 효과적인 개선전략 수립을 세우려고 한다. 첫 번째는 제품이나 메뉴의 보강을 통한 고객의 만족도 증대와 수익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한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VMD전략의 전개 즉 브랜드 컨셉에 맞게 제품을 전시하고 매장 전체의 시설을 보완하여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구매나 이용욕구를 자극하고 고객의 유입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이미지물의 리뉴얼을 통한 매장의 이미지 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메뉴판이나 메뉴보드,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매장 내외부용 이미지물에 대한 디자인 업그레이드로 고객들의 호기심 자극과 안정적인 매장환경을 제공하려는 전략이다. 네 번째는 사업자와 직원들의 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제품이나 메뉴 및 서비스 품질 강화전략을 수립하려고 한다. 다섯 번째는 홍보마케팅 강화와 정기·부정기 이벤트에 대한 강화를 꼽는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매장의 인지도 확대와 다양한 이벤트의 전개를 통한 이용고객의 확대 유입을 꾀하게 된다.

경영개선 전략 수립 후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예산에 여유가 없다면 비용의 소요규모가 적은 전략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경영개선은 빠른 속도로 전개하여 매장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의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영개선 자금의 부족 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판단이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 입주 웹툰작가 서강용씨 광주시 제작지원 ‘캐스팅’ 저스툰에 연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서강용 작가의 ‘캐스팅(사진)’이 웹툰 플랫폼 ‘저스툰’에 지난달말부터 연재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웹툰 ‘캐스팅’은 낚시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생소한 스포츠·코믹 장르다.

전국 각지의 지역·어종별 낚시 기법들을 소개하고 낚시꾼들이 모이는 장소와 각종 어류들을 재료로 한 음식 등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 소개한다. ‘캐스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됐다.

서 작가는 7년째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마왕의 성’, ‘심봉사전’, ‘까락:별교주맥쟁이’ 등이 있다. 현재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작품 활동 중이다.

웹툰 플랫폼 저스툰은 출판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위즈덤하우스미디어 그룹이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 런칭한 회사다.

이정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재미와 지식, 취미를 얻는 다양한 기획의 콘텐츠들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광주가 문화콘텐츠의 출발이자 완성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난 1일 조선대 체육대학에서 열린 창업 지원을 위한 약정식에서 기성근(왼쪽에서 세번째)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장과 정명수(오른쪽에서 두번째) 조선대 체육대학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장이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광주과학기술원 제공>

GIST-조선대, 스포츠 특화 창업지원 협력

광주과학기술원(GIST) 창업진흥센터(센터장 기성근)는 1일 조선대 체육대학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센터장 정명수)와 창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학생과 일반인의 스포츠관광, 해양스포츠, 스포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분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성근 GIST 센터장은 “각 기관이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지원체계를 갖추고 관련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타 기관이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조선대 센터장은 “스포츠 특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3가 업무시설

경매물건

토지 480평 감정가 103억 건물 1503평 최저가 76억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임야 파도리사무소인근 도로점 토지 18452평 감정가 140,000,000 최저가140,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인근 도시지역 일반상업도시 토지 2746평 감정가 7,300,000,000 최저가 3,600,000,000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장흥군 관산읍 남송리 임야 관산터미널인근 2차선포장도로점 토지 6600평 감정가 50,000,000 최저가 50,000,000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종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윤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감진 신천면 수영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